

## 영국 《새 파도》극문학의 반동성

김 대 섭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종래의 연극리론은 모두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유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날 연극계의 거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연극은 대부분이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것이며 누구를 위하여 복무하는가 하는것도 명백하지 못한것이였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4권 450페이지)

20세기 후반기에 영국의 극문학분야에는 《새 파도》라고 부르는 류파가 새로 등장하였다.

이 류파는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새뮤얼 베케트를 중심으로 한 창작가들에 의하여 연극계의 《혁명》이니, 새로운 《전위극》의 탄생이니 하면서 나타난 《반연극》에 대하여 일종의 반기를 들고 출현하였다.

《새 파도》극문학류파는 반동적실존주의철학을 그 사상적기초로 하였으며 현대부르조아퇴폐주의극문학의 한 부류를 이루었다.

《새 파도》극문학의 대표적인 창작가들로서는 《분노한 청년파》문학과 밀접히 련관되였던 극작가 존 오스번을 비롯하여 존 아덴, 에드워드 본드, 로버트 볼트, 크리스토퍼 프라이와 반스 등을 들수 있다.

《새 파도》극문학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먼저 극작품들에서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내용을 반영하는것을 거부하고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굴종을 설교하는 내용만을 담을것을 주장함으로써 압제를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투쟁정신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였다는데 있다.

이미 제2차 세계대전을 앞둔 시기에 영국을 포함한 서유럽나라들에서는 극문학에 절박한 사회정치적문제와 심오한 사상적내용을 반영하는것을 반대하고 순수 개인적인 체험과 심리, 가정세태적인것과 룰리도덕적인 문제만을 담을것을 주장하는 조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반동적인 《순수예술》의 제창자들은 극문학분야에서 《사상극》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작품들에서 순수 개인적생활과 사말사에 대한 론의에 그치고 사회정치적문제를 완전히 외면한 극작품들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유럽에서 헨리크 입센과 버너드 쇼에 의하여 극문학에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 사상적내용을 반영하는 경향이 나타난데 대하여 두 작가를 극문학을 정치화한 장본인이라고 비방하였다.

프라이는 희곡에서 사건의 모든 배경은 등장인물들과는 관계없이 외적의미를 가지게 하여야 하며 그것은 신화와 전설들에 영원한 진실을 부여하고 마술적인 이야기를 산문적인 사실로 옮겨놓듯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새 파도》극문학작가들은 작품들에서 현실생활과 유리된 개인을 그리고 극의 기본문제를 도덕률리적문제에 귀착시켰으며 그것을 다시 종교적신비주의에로 이끌어 가려고 시도하였다.

그들은 현실의 진실한 반영을 반대하였으며 그대신에 현실과 떨어져 순전히 극작가에 의하여 고안되고 추상화된 주인공을 내세우고 그의 개인적세계를 그리는데 열중하여야 한다고 떠들었다.

《새 파도》극문학은 예술의 사상적내용을 거부하면서 희곡작품들에 사회적해방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과 생활을 반영하는것을 반대하고 비관과 타협을 설교하는 내용들을 취급하였다.

대표적실례로 프라이의 작품들을 들수 있는데 그의 희곡 《첫아이》에서는 폭군을 반대하는 투쟁과 인간의 비극적고통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희곡의 사건은 고대에쥘트의 력사에서 선택한 소재에 기초하였으며 작가는 이를 통하여 《현대의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작품에서 작가에 의해 설정된 《현대의 중요한 문제》란 인민대중의 해방투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절망과 파멸에 대한 문제이며 권력과 죽음의 대결에 대한 문제이다.

작품에서는 파라오(고대에쥘트의 왕)의 거대한 피라미드건설장이 제시된다.

부유한 노예주 씨씨는 광범한 인민들의 고통과 지향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오히려 왕권통치를 더욱 강화할것을 력설한다. 그러나 인민출신으로서 한때 씨씨의 경비대장이였던 모이세이는 억눌린 사람들에게 파라오의 권력을 반대하여 투쟁에 나설것을 호소한다. 그는 왕국의 류혈통치를 폭로하며 그 멸망의 불가피성을 예언한다.

폭군의 전제통치는 나라에 헤아릴수 없는 불행을 들씩워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로 죽어가고있으며 거기에다 메뚜기떼의 피해, 우박과 지어 계속되는 일식의 《불길한》 징조까지 나타났다.

작품에서는 이처럼 압제자의 전횡과 그밑에서 시달리는 인민들의 고통과 불만을 제시해놓고서도 그것을 응당한 귀결으로 발전시키지 않았다.

작가는 작품에서 그 어떤 정치적주장을 제기하였든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같이 파멸에 처하고마는것으로 그리었다. 그리하여 희곡에서는 폭군을 반대하는 투쟁을 주장하던 사람들인 반란자들은 물론이고 타협을 주장하던 미리암, 아나트 등의 인물들도, 개인적권력의 강화를 웨치던 씨씨, 쉐지 등 모두가 파멸의 운명에 처하고만다.

특히 모이세이의 가장 가까운 친우로서 투쟁을 열렬히 주장하던 젊은 청년 람세스가 참혹한 죽음을 당한다.

작가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는 불가피하게 수다한 희생을 가져오게 되며 억압받는 사람들이 이 세계에서 겪는 고통은 영원하고 피할 길 없는것이라는 비관주의를 류포시키었다.

《새 파도》극문학작가의 한사람인 볼트의 작품들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명백히 나타났다.

볼트는 자기의 적지 않은 작품들에서 사회정치적투쟁을 거부하고 개인의 룬리도덕적 문제들만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에게 굴종과 타협을 설교하였다.

실례로 그의 비극 《영원히 살 사람》에서 16세기 영국의 인문주의사상가이며 작가였던 토마스 모어의 생활과 죽음에 대하여 그린것을 들수 있다.

희곡은 그 소재로 보아 응당 력사극으로서 영국봉건사회에서의 봉건통치세력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문제를 취급하여야 하겠으나 왕 헨리의 불순한 정욕의 추구하고 종교적 금욕주의문제 등을 그리면서 도덕론리적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작품에서 토마스 모어는 왕과 궁녀 앤 불린사이의 치정관계를 신성화하라는 명령을 수행할것을 거부해나선다.

왕 헨리는 생활이란 모든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리용하는 놀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모어는 생활이란 선과 정의를 인식하는 운동이라고 보며 결국 그는 자기에게 가해지는 사형언도를 당당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작품에서 작가의 주되는 관심은 모어와 대치되는 혐오스러운 타협주의자로서 굴종과 투항을 설교하는 《보통사람》이라고 부르는 인물에 돌려졌다.

볼트는 이 타협주의자를 전체 인민의 특질을 대표하는 인물인것처럼 내세움으로써 사람들에게 하여금 사회적진보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도록 추동한것이 아니라 압제자, 지배자들에 대한 타협과 굴종으로 나가도록 강요하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냈다.

《새 파도》극문학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작품들을 통하여 《사회에 대한 비판》을 표방하면서 정치투쟁을 거부하고 인간의 본성을 외곡하였다는데 있다.

이 류파의 창작가들은 자기들의 작품들에서 인간을 무력하고 불쌍한 동물적존재로 그려내었다.

대표적실례로 본드의 비극 《리어》에서는 인간의 개성을 짓누르고 사람들을 최악에 찬 존재로 만드는 자본주의사회의 강압적권력을 반대하면서도 인간은 나약하고 가련하며 동물과 다름없는 존재라는 결론을 내리고있다.

희곡에는 왕 리어와 그의 두 딸들인 보디스와 폰타넬리, 귀족 웰링턴, 리어의 적수들인 콘월과 노트, 코델리어 그리고 수많은 병사들과 농민들이 등장한다.

처음에 왕 리어는 잔혹하며 원기왕성한 국가통치자로 등장한다. 그가 자기의 일생의 위업으로 간주하며 강력히 추진시키는데는 왕국의 둘째에 성벽을 축성하는것이였다.

리어는 이 성벽을 인민을 위해 쌓는다고 확신하며 신하들에게 《나의 성벽은 당신들을 자유롭게 해줄것이요.》라고 강조한다.

두 딸은 아버지가 하는 성벽축성을 무익한 일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만두도록 설복하려고 시도하며 강압과 폭행을 반대한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 리어가 자기의 원수로 선포한 귀족들인 콘월과 노트가 자기의 련인들이며 그들이 곧 자기들의 남편으로 될것이라고 말한다. 리어는 격분하여 딸들을 저주하며 딸들이 도망쳐서 자기의 적수들에게 가버리자 그들에게 전쟁을 선포한다.

이렇게 부르조아사회의 강압과 리기주의, 권세욕을 비판하던 본드는 희곡에서 사회적변혁을 위한 투쟁을 부인하며 인간의 본성을 외곡하여나선다.

두 딸들인 보디스와 폰타넬리는 리어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정권을 잡는다.

강압과 폭행을 반대하던 두 딸들은 정권을 잡자 처음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길로 나간다.

두 딸은 포로로 잡힌 귀족 웰링턴을 잔인하게 고문한다. 뜨개바늘로 그의 두귀를 꿰며 뼈죽한 여자신발뒤축으로 사정없이 손을 내리밟는다. 그들은 이미 허물기 시작했던 성벽을 다시 쌓고 완성하라고 명령한다.

한편 보디스는 무제한한 권력은 쥐였으나 자유를 느끼지 못하며 오히려 자기가 권력의 노예가 된감을 느낀다.

비극에서는 두 자매의 령혼이 감옥에 갇힌 리어의 철창에 다가와 매달리는것을 보며

주며 그들도 역시 강압의 구속물이라는것을 인식시킨다.

드디어 코델리어를 선두로 한 인민이 봉기에 일떠서며 두 자매를 꺼꾸러뜨린다.

살해된 폰타넬리를 리어의 눈앞에서 해부한다. 작가는 여기서 인간의 정신을 물질화 하면서 리어의 눈을 통하여 폰타넬리의 심장속에서 악을 찾아내려고 한다.

작가는 리어의 입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적라라한 인간은 바로 불쌍하고 험벗고 두 발을 가진 동물이며 그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다.

이처럼 비극에서는 압제자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무익한것으로 보면서 압제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려는 인간의 본성적요구를 외곡하여 그리었다.

본드의 이후의 작품들인 희곡 《빙고》, 《돌》, 《복귀》 등에서도 자본주의사회의 폭력을 반대하는 립장이 일정하게 나타났으나 사회적변혁에 대하여서는 회의주의적립장을 취하였다.

《새 파도》극문학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인간의 부패와 타락, 범죄와 패덕을 고의적으로 찬양하였다는데 있다.

이 류파의 창작가들은 자기들의 희곡들에서 인간의 범죄적이고 패덕적인 행위들을 합리화하며 인간의 본성을 죄악적인것으로 외곡하여 그리었다.

대표적실례로 본드의 희곡 《구원된 사람》을 들수 있는데 작가는 이 작품에서 인간정신의 어두운 측면을 강조하면서 자본주의사회에서 성행하는 패륜패덕과 범죄행위를 오히려 변호하여나선다.

작품의 사건은 남부런던의 빈민굴, 실업자들이 옥실거리고 온갖 범죄가 판을 치는 음산한 곳에서 벌어진다. 이곳에 사는 젊은 사람들은 남이 알아들을수 없는 은어들만을 쓰며 상대방을 피트, 마이크, 뎀, 렌, 프레드 등의 각종 별명으로 부른다.

기본주인공은 젊은 총각 렌과 녀성로동자 뎀으로서 그들은 서로 사랑관계를 맺고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며 뎀은 렌을 배반하고 렌의 동료인 프레드에게 마음이 쏠려 그와 치정관계를 맺는다. 얼마후 뎀은 아이를 낳았지만 어린애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며 그의 정신은 온통 프레드에게만 쏠려있다. 그러나 프레드는 점차 뎀을 거들떠보지 않게 된다.

어느날 프레드가 자기를 랭대하는데 격분한 뎀은 어린애를 태운 유모차를 공원에 버리고 온다. 그러자 실제상 어린애의 아버지인 방종한 악당 프레드와 그의 동료들인 젊은 패거리의 어린애를 돌맹이로 때려죽인다.

작가는 여기서 어린애를 야수적으로 살해하는 젊은 패거리의 행동을 《에디푸스적인 비극》으로 묘사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본의아닌 범죄를 저지르게 되며 인간의 의식속에는 본래부터 범죄의 의식이 있다고 주장한다.

본드는 인간의 범죄의식, 인간정신의 어두운 측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희곡의 모든 기본사건들을 어둠속에서 전개시키고있다.

《새 파도》극문학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고독과 절망, 죽음을 설교하며 인간생활의 허무감을 강조하였다는데 있다.

이 문학의 극작가들은 자기들의 작품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투쟁의식을 마비시키며 비관주의에 빠지게 하였다.

이 류파의 주되는 창작가의 한사람이었던 존 오튼은 자기의 작품들에서 죽음에 대한 문제를 기초로 삼고 죽음의 취지를 하나의 교리처럼 내세웠다.

오텐의 희곡 《슬로운씨의 유흥》은 인간의 잔인성, 범죄와 죽음에 대한 문제를 취급하였다.

극의 이야기는 한 평범한 주택에서 벌어진다. 슬로운은 우연히 중년의 집주인인 캠프의 집에 류숙하게 된다. 어려서부터 고생스럽게 자라난 고아인 슬로운은 다른 사람들의 동정을 받으며 사는데 습관되었다.

그러나 슬로운자신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그들을 오히려 잔인하게 대한다. 그리하여 슬로운은 집주인인 캠프를 모욕한다. 격분한 캠프가 슬로운이 범죄자라는 것을 폭로하자 슬로운은 캠프를 죽여버린다.

그런데 작품에서는 슬로운의 이러한 범죄적행동이 주위사람들에게서 아무런 격분도 자아내지 않는것으로 묘사되었다. 작가는 그가 마지막에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용서를 받고 지어 그들의 총애까지 받는것으로 그리었다.

이처럼 작품에서는 슬로운의 살인범죄행위가 주위사람들에 의해 이해를 받는것으로 보여주면서 그것을 로골적으로 비호해나서고있다.

오텐의 희곡 《략탈물》에서는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못가지고 비판과 고독에 싸여 무식, 암둔, 게으름 등의 극도의 침체에 빠져있는 젊은 세대를 그려내면서 그것이 마치도 인간전체의 운명인듯이 외곡하고있다.

이처럼 《새 파도》극문학의 창작가들은 력사발전에서 노는 인민대중의 역할을 무시한 결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외곡하고 계급투쟁을 거부하는데로 나아갔다.

《새 파도》극문학의 창작가들은 자기들의 작품에서 인민대중을 무지몽매하고 무기력한 존재로만 그려내였으며 그들을 압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길을 모색하다가 결국에는 출로를 찾지 못하고 고독과 불안속에 외롭게 죽어가는 존재들로 묘사하였다.

우리는 부르쥬아연극의 퇴폐적이고 반동적인 영향을 반대배격하고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우리의 연극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추동하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할것이다.